

‘친문 vs 비주류’ 與 원내대표 경선, 당권에 변수되나

‘D-1’ ... 윤호중 선출시 당내 주류 견제심리 강화돼 친문 흥영표 영향 박완주 당선 땀 우원식과 기반 겹치고 송영길엔 86세대 기득권론 부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14일 차기 당권주자들도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다. 무엇보다도 ‘친문 대 비주류’의 양자대결 구도로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의 결과에 따라 전당대회의 판세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그 상관관계가 주목된다.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흥영표 의원은 이날 “마지막까지 문재인 정부를 지키겠다”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15일 도전을 공식화할 예정인 송영길·우원식 의원을 포함, 당권 경쟁은 3파전으로 치러진다. 전당대회는 오는 16일 원내대표 경선 후 불과 2주 뒤인 내달 2일 연이어 열린다는 점에서 당 대표-원내대표 ‘투톱’을 뽑는 표심도 서로 연동될 수밖에

에 없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일단 ‘이해관계 친문’으로 분류되는 윤호중 의원이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다면, 당내 주류를 향한 견제심리가 강화돼 ‘부영이 모임’ 출신의 흥영표 의원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제거하는 시선이 있다. 반면 박완주 의원이 원내대표 경선에 당선될 경우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와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연) 등 지지 기반이 당권주자 우원식 의원과 겹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은 운동권 그룹의

만행 격이라는 점에서 ‘86세대 기득권론’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제기된다. 윤호중·박완주 의원 모두 같은 86 출신이어서 민주당 ‘투톱’을 모두 운동권이 차지하게 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당내 인사는 “재보선 패배 이후 친문 책임론이 제기되면서 비주류 인사들에게 좀 더 힘이 실릴 수도 있지만, 친문 주류가 강성 당원을 제어하고 쇄신을 주도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며 “지도부 선거를 통해 균형이 맞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 174명만 투표에

참여하는 원내대표 경선과 달리, 전대는 권리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 여론조사까지 포함되는 방식이어서 동일선상에 놓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분위기에 따라서는 친문-비주류 조화가 아니라 친문-친문, 혹은 비주류-비주류 등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원내대표 경선은 당내 절반인 초선 의원들의 표심이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전대로 나타나는 민심과 당심은 전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의 비공개 전체회의에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과 윤관석, 김성환, 남인순 의원 등이 참석,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심으로 가자” 목소리 키우는 친문

민주당내 의원모임 ‘변화·혁신 안하면 대선 어려워’ 의견 잇따라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쇄신 방향을 모색하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다시 친문계의 목소리가 커지는 모양새다. 민주당 내에서는 14일 ‘당심(黨心)’보다 ‘민심(民心)’에 가깝게 다가가기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은 당내 진보·개혁성향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전체회의에 발제자로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지층을 결합하면 선거에서 이긴다는 게 얼마나 환상이고 착각적인 통계로 분석했다”며 “변화·혁신하지 않으면 대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계 주축인 의원 모임인 ‘광화문포럼’ 회의에서도 정한을 한국리서치 여론분석 전문위원이 조국 사태 이후 민심이 이반됐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개혁입법 추진을 원하는 ‘당심’과 민생 이슈에 관심 있는 ‘민심’의 괴리를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쇄신 논의의 결국은 당심 중심으로 흐르면서 민심과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사실상 “모두에게 책임이 있

다”는 양비론이 부각되면서 ‘친문 책임론’은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조국 사태’에 반성문을 써낸 20~30대 초선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안긴 열성 당원들은 전날 성명서에서 ‘배은망덕’, ‘쓰레기’ 등 노골적인 표현으로 맹비난을 가했다. 당대표·원내대표 주자들도 “총선을 통해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받았다”(윤호중 의원), “하나씩 잘라내 책임을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우원식 의원) 등의 발언으로 ‘조국 사태 반성론’에 거리를 두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도부 경선물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으로 쇄신 논의의 초점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치열한 토론을 거쳐 ‘질서 있는 변화’를 모색하는 중이라는 반론도 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들 사이에 서로 그동안 못한 이야기를 글로 화합하고 다시 글로 반박하는 등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반성은 해야겠지만 요란스럽게 하는 게 맞겠느냐”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해충돌방지법, 법안소위 통과

8년을 끌어온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노력이 급물살을 탔다. 국회 정부위원회는 1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활용한 공직자의 사익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가 최근 한국도주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사태를 계기로 법안처리에 속도가 붙었다. 정부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명에게 적용된다. 사립학교 교사와 언론인은 제외됐다. 사립학교법과 언론관련 법률을 통해 이해충돌을 제재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제정안은 직무와 관련된 거래를 하는 공직자에 대해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 민간에서 업무 활동을 한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나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은 해당 공공기관과 산하기관, 자회사 등에 채용될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형석,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추진 점검회의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국회의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광주, 광주 북구청,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운전면허시험장 건립 관련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운전면허 시험장 실시 설계 용역 추진 계획과 함께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선정 추진 상황과 소요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점검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접근성, 소요 예산 등을 두루 고려해 최적의 부지를 확보해야 한



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미래 교통 인프라 구축 상황을 염두에 첨단 자율주행 운전면허시험장을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운전면허시험장 건립 사업 추진 기관별 원활한 업무 협의와 효율적 업무 분장을 하기 위해 테스트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철현, 경자유전 원칙 실현 ‘농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여수) 국회의원이 14일 “전체 농지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비농업인들의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지법 개정안은 크게 4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취미와 여가활동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임대와 무상사용만 허용하도록 했다. 상속으로 취득하거나 장기간 영농하다가 이농(離農) 후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해,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면적에 상관없이 처분 하도록 했다.



정부는 상속 등으로 소유하고 있는 1만㎡ 이하의 농지도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발생한다고 해석·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9년 2월 14일 1만㎡ 이하의 상속 농지는 영농에 이용하지 않아도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2017두65357)해, 농지정책에 혼선이 초래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 농지 등도 면적과 상관없이 영농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 대상이 된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정비했다.

김승남, 日 원전 오염수 방출 규탄 국제공조 강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14일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 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 연근해에 약 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



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을 한 일본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도쿄올림픽 출전 거부 등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는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을 향해서도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흥군 공고 제2021-337호

전남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사업 무연고 분묘 개장 공고

「전남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사업」 편입 토지 내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계획일·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 후 개장(이장)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임의개장(이장) 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가수

소재지	지번	분묘가수	비고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우산리	산56	31	무연고
2. 개장사유: 전남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사업 공사 편입
3. 개장방법: 가. 무연분묘: 연고자가 신고 후 개장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임의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장 소: 장흥군 유치면 대리 산105-1번지 유치 공설 공원 묘지 나. 기 간: 납골보존기간은 10년으로 기간 종료 후에는 집단 매장
5. 공고기간: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2021. 4. 15. ~ 2021. 7. 15.)
6. 무연분묘 개장신고: 가. 신 고 처: 장흥군 장흥읍 사무소(주민복지담당) 나. 제출서류: 연고자 증명서류(제적등본, 족보,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입증서류 등)

※ 분묘 이장비는 장흥군 재난안전과에서 지급할 예정이므로 분묘 신고자께서는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 전 중·후 사진과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 예금통장 및 개장신고필증(화장의 경우 화장증명서 포함) 등을 함께 구비해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 타: 가. 본 공고에 누락된 전남소방교육대 시설 확충 사업 편입 토지 내 소재한 분묘(공사 시행중 추가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같음하며, 나. 개장(이장)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흥군청 재난안전과 ☎ 061-860-61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15일
장 흥 군 수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인성전력(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선전에너지(이하 "을"이라 함)는 서기 2021년 04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을"에 합병하고, "갑"과 "을"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관제 회사로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회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4월 15일
"갑" 상 호: 주식회사 인성전력 (법인등록번호: 204911-0006390)
소 재 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송곡길 4-51, 나동
대표이사: 이 명 희
"을" 상 호: 주식회사 선전에너지 (법인등록번호: 160111-0586648)
소 재 지: 대전광역시 중구 대동로 109, 6층(옥계동)
사내이사: 김 선 미

분할 합병 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다우퍼워텍(이하 "갑"이라 함)과 주식회사 금라종합기술(이하 "을"이라 함)은 2021년 04월 14일 개최된 각 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갑"의 전기공사업 영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재산으로 "을"과 분할합병(갑)의 전기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상법 제530조의2제3항의 절차를 밟아 결의 하였으므로 이 회사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본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또한 각 사의 주주는 해당 회사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

2021년 04월 15일
"갑" 상 호: 주식회사 다우퍼워텍 (법인등록번호: 204911-0006390)
소 재 지: 경기도 화성시 봉암읍 삼천면 1023
대표이사: 박 광 송
"을" 상 호: 주식회사 금라종합기술 (법인등록번호: 160111-0586648)
소 재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44, 101호(고봉동)
대표이사: 김 민 형

산행안내

4월18일(일)
▲광주K산악회 4월18일(일) 충북 충주, 보련산&국망산, 6920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9년

光州日報

광공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

영주체육관 06:00, 동아병원 06:05, 롯데백화점 06:10, 광주역 06:15, 문예후문 06:25, 비엔누차장 06:30 ※ 다음과 폐 광주K산악회 ☎ 010 7794 6920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
각서·운송료·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
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회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010-2860-4700
직통전화 062)521-4109